

[2014년 3월 러시아 수산물 및 수산식품 동향]

1. 관할지역, 현장 이슈

▶ 러시아 어류제품 생산 하락 원인 Top10

2014년 1월에 어류제품(저장처리제품 포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한 281천 톤으로 집계됨. 보통 1월은 공휴일 일수가 많은 관계로 2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올해 어류제품 생산동향 방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아직 생산하락세가 중단될 긍정적인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음:

1) 수출관세율 인하와 수출증가

어업모니터링시스템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2월 11일 기준 총어획량은 473.8천 톤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년수준보다 3%(14천 톤) 높은 것임. 어획량 증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수요가 높은 어종 어획량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수출되어 나가는 명태 어획량 때문에 발생한 것임. 이 기간에 명태 어획량은 282.1천 톤으로 전년수준보다 51.2천 톤 높음 수출관세율이 2013년 9월 1일부터 5%에서 3.75%로 인하된 것이 어류수출 증가를 촉진시켰고 수출성장경향을 더욱 강화시켰음

2) 쿼터와 TAC 축소

2014년 해덕과 열빙어 쿼터가 전년수준보다 각각 10.4천 톤, 55.0천 톤 감소. 또한 태평양청어와 대서양청어의 총허용어획량(TAC)이 축소되었음

3) 불완전한 조세법

불완전한 조세법이 러시아수산업종사자들의 수출 선호경향을 조장하는 원인 중의 하나임. 국내시장으로 공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비해, 어류제품을 수출용으로 공급할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수출업자에게 반환되고 있음. 어류가공업에 대형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러시아에서 전체 어류의 절반 이상이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4) 수의문제와 상품추적문제.

매년 어류제품 4백만 톤과 육류제품 8백만 톤 정도가 수의인증을 받고 있음. 매년 농업인들은 약 100억 루블을 수의동반서류 작성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또 100억 루블이 지역수의사들에게 서비스 계약비로 나가고 있음. 이와 같이 수의인증 통과가 지체됨으로써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있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류 가격을 인상시키며 국내시장으로의 어류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5) 어류가공업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연안 어류가공업체들이 원료를 공급받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들은 연안쿼터를 소유하는 업체들이 선박에서 어류를 가공할 수 있다는 점과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또한 노후한 어류가공설비, 낮은 기술수준, 낮은 생산력이 문제임

6) 노르웨이산 어류의 수입금지

동식물검역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일련의 노르웨이 회사에서 생산된 어류 및 어류제품의 러시아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시켰음. 금지를 당한 노르웨이 회사들은 러시아 수의전문가들의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임. 금지제품목록에 포함된 어종은 대구, 고등어, 청어, 넙치, 대서양붉은볼락임. 노르웨이는 해당 어종을 러시아로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생산 감소와 시장가격인상은 피할 수가 없음

7) 행정장벽과 너무 많은 관리감독기관들

8) 수입 증가와 수입가격 인상

올해 가공어류제품 수입과 대외무역어류가격이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관세청의 통계데이터(잠정치)에 따르면, 2014년 1월에 비CIS국에서의 신선 및 냉장어류, 피레트 수입(HS코드 0302-0304)은 전년 동월대비 4.8% 증가한 200.8백만 달러로 집계됨. 수입성장은 냉장어류 수입액(108.6백만 달러)이 11.6% 증가하고 피레트(23.8백만 달러)의 경우 3.1% 증가한 것에 기인함. 올해 초부터 2월 중순까지 냉장연어 수입가격은 1.2% 인상한 49.4NOK/kg이고 냉동연어 수입가격은 3.6% 인상한 46.1NOK/kg임

9) 루블의 평가절하

2014년 1월에 세계통화에 대한 루블의 평가절하는 어류와 해산물의 수출 성장과 어류의 국내시장 유입 축소를 촉진함

10) 어류와 해산물 소비자가격 인상

올해에는 어류와 해산물 소비자가격이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즉, 올해 초부터 2014년 1월 말까지 어류와 해산물 소비자가격은 0.8% 인상되었고 냉동어류 소비자가격은 1.6% 인상됨.

11개 주요 식품 중에서 소비자가격 급상승 순위 면에서 어류와 해산물은 4위를 차지함. 어류를 대체할 수 있는 육류와 가금육 가격이 0.1% 하락함. 특히 2013년-2014년 초에는 가금육 생산이 성장한 가운데 닭고기 가격이 현저하게 인하되었고 이는 육류 및 어류시장에서 가금육의 비중 증가로 귀결됨. 신선 혹은 냉장어류의 평균소비자가격은 닭고기 가격보다 높게 되었음

총체적으로 어류제품 생산 총규모에서 냉동어류(청어제외)의 비중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높으며 2013년에는 68%를 차지함. 어류제품 생산규모 구조와 동향에 기초해서 살펴보면, 러시아주민들의 소비수요는 저차가공 어류제품으로 이동하고 있고 어류가공업체들의 생산제품 종류에서 고차가공 세그먼트와 고가범주의 조제품 출하가 감소되고 있음

▶ 러시아, 수입산 어류가격 인상에서 보호받아

러시아농업부 장관은 러시아가 수입산 어류가격 인상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밝힘. 환율변동의 영향은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당국은 자국어류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함. 러시아는 어류의 80%를 자급자족하고 있음. 환율이 인상되면 이는 상점 제품가격에 반영되겠지만 WTO 조건 속에서도 규제할 수 있다고 함

러시아의 어류 및 해산물 양식산업은 중국의 1/230 수준임. 현재 중국(38백만 톤)이 양식 생산규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의 경우 2013년에 163천 톤에 불과함

2013년 러시아의 어류수입 총규모는 2012년 대비 7.3% 증가한 1백만 톤까지 성장함. 2013년 한해동안 러시아어민들의 수생생물자원 어획규모는 4.28백만 톤으로 이는 2012년 수준보다 0.3% 높으며, 어류제품 생산규모는 3.68백만 톤으로 집계됨(연간 1.5% 성장). 수출규모는 12.6% 증가한 1.88백만 톤까지 성장함 2013년 수출액은 34억 달러로 집계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료수출이 우세함. 공급규모의 90%는 냉동어류가 차지하지만 수출(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의 효율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음. 러시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저가 저차가공 원료로 중국시장을 채우고 있음.

국내시장에서 자국산 식용어류제품의 비중은 78.2%를 차지함(2012년 수준). 어류와 어류제품 소비는 일인당 22kg임(2012년에는 21.7kg)

▶ 러시아시장에 주요어종 부족현상

올해 초에 어획량 감소와 대외경제활동이 주춤한 가운데 러시아 어류시장에는 주요어종 부족현상이 발생됨. 2014년 2월 25일 기준, 총어획량은 전년수준보다 0.7%(5.2천 톤) 감소한 695.8천 톤임. 2014년 1월에 북서연방관구에서는 어류 및 해산물 수입량이 전년동월대비 9.1% 감소한 58.1천 톤, 수출량이 40.6% 감소한 5.6천 톤으로 집계됨. 이와 동시에 극동연방관구에서는 어류 및 해산물 수출량이 45.8% 감소한 70.5천 톤, 수입량이 1.5천 톤에 불과함

극동지역에서는 명태, 꽁치, 레모넨마, 오징어, 대구, 납치(halibut) 등이 부족함. 재고 감소와 수요 증가로 인해 이 어종들의 도매가격이 인상되고 있음. 명태 도매가 53루블/kg, 굽사송어 95루블/kg, 케타연어 105루블/kg, 가자미 30루블/kg, 태평양청어 19루블/kg, 오징어 69루블/kg, 대구 60루블/kg임

러시아중앙유럽지역에서는 자국산 연어종류와 대서양청어, 열빙어, 블루화이팅, 해덕, 명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도매가격이 인상됨. 이와 동시에 중국산 틸라피아와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노르웨이산 냉장연어, 칠레산 냉동무지개송어 수요가 하락함. 대서양청어 조업쿼터가 축소되면서 도매시장에서는 특정 사이즈의 대서양청어 부족현상이 발생함. 대서양청어 도매가는 금년초부터 인상되어 현재 52-67루블/kg에 거래됨. 올류토르청어가 대서양청어를 대체하고 있음. 올해 열빙어 총허용어획량 축소로 인해 열빙어 부족현상도 생겨남. 열빙어 도매가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가격수준이 대서양청어수준과 맞먹을 정도이며 46-56 루블/kg에 거래됨. 또한 도매어류시장에서 해덕과 대구 부족현상도 존재함. 수입산 노르웨이산 냉장연어 가격이 400-425루블/kg까지 인상되고 칠레산 냉동무지개송어의 경우 340-375루블/kg까지 인상되어 이 어종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하락세임

북서지역에서는 대구 도매가격이 95-105루블/kg, 해덕 110루블/kg, 대서양붉은볼락 139루블/kg, 열빙어 38루블/kg, 보스톤블루피쉬 95루블/kg임. 총체적으로 올초부터 주요어종들의 부족현상이 발생되면서 어류 도매가와 소비자가격이 인상됨. 올초부터 2월 24일까지 손질하지 않은 냉동어류의 평균소비자가격은 3.1% 인상됨

▶ 국가두마와 농업부, GMO 제품 반입 금지 주장

국가두마(하원) 농업문제위원회는 유전자변형(GMO)제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GMO제품의 러시아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음.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에서 GMO제품의 재배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니콜라이 표도로프 농업부 장관의 견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의 견해와도 일치함

현재 러시아에서는 오직 14개 지역에서만 GMO 재배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한 조건들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성해주어야 하며 친환경적이고 유기농적인 농업생산을 발전시켜야 함. 이는 세계시장에 자국산 제품을 수출할 시에, 특히 WTO 조건 하에서 추가적인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농업부 장관 역시 '러시아는 식품 생산에서 GMO 사용을 금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 밝힌 바 있고 이와 유사한 법률강화 제안이 언급되었음

2013년 9월에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총리는 유전자변형곡물을 러시아에서 파종하는 것을 허가하는령 N839에 서명한 바 있는데 해당 결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야 함

2. 수산물 수입동향 및 전망

□ '14년 1월 러시아 수산물(신선, 냉동어류) 수입은 물량기준 55.8천 톤으로 전년동월대비 9.5% 감소, 금액기준 164.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

- 2014년 1월 비CIS국에서의 신선 및 냉장어류, 피레트 수입(HS코드 0302-0304)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200.8백만 달러로 집계됨.
- 냉장어류 수입액은 11.6% 증가한 108.6백만 달러이고, 피레트 수입액은 3.1% 증가한 23.8백만 달러임

< 품목 수입통계 >

(단위: 백만\$, 천톤, %)

품목	2014년 1월 당월				참조 '13.1/ '12.1
	금액	물량	전년동월대비(%)*	전년12월대비(%)*	
신선·냉동어류 (HS코드 0302-0304)	164.5	55.8	90.5	67.0	131.1

자료원: 연방통계청(*물량기준)

3. 타국산(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 연어 캐비아

- 2013년 러시아에서 연어 캐비아 생산은 전년대비 1.6% 감소하여 11.7천 톤까지 하락함. 연어 캐비아 생산 감소원인은 2013년 연어 어획량 감소와 연관됨. 게다가 전통적으로 연어 성어기로 생각되는 홀수 연도에 이와 같은 어획량 감소가 발생됨

□ 킬카

- 2014년 2월에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어종 5위에 속하는 킬카가 상점들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음. 1월 말경에 가공업체들은 남아있는 킬카 재고를 포장하며, 더 이상 재고를 채워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임. 왜냐하면 킬카 조업이 한창인 시기에 동식물검역국이 대형해외공급업체들의 킬카 공급을 금지시켰기 때문임

- 에스토니아 업체들 중에서 대형킬카공급업체 6개가 1월 9일부터 러시아반입이 금지되었고 작년 11월에 2개 업체가 이미 금지를 당한 바 있음.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킬카 수입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평가시우스**

- 러시아는 2014년 1월 31일부터 베트남산 평가시우스 공급을 금지시켰고 8개의 베트남 업체에서 생산되는 어류제품 모두를 반입 금지시킴. 해당 제한조치는 베트남에서 공급되는 다른 어종에도 관계됨
- 동식물검역국은 2013년 12월에 베트남에서 실시된 러시아 수의전문가들의 감독 결과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당국 전문가들은 8개 어류가공업체들과 평가시우스 양식농장 2곳, 실험실 2곳을 검사하였고 평가시우스 양식 시에 안티박테리아 물질이 통제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함
- 또한 가공용 어류가 수의동반서류들도 없이 업체들로 계속 배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식물검역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킴. 관세동맹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어류가공업체들이 관세동맹의 요건과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됨
- 2013년에 러시아는 베트남에서 약 21,000톤의 평가시우스를 수입함

□ **염장, 건조, 훈제어류**

- ‘비즈니스스타트’의 ‘러시아 염장, 건조, 훈제어류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간 러시아 시장에서 염장, 건조, 훈제어류 수요가 매년 증가함. 두드러진 수요성장률을 보인 것은 2012년이었고, 이때 수요규모는 전년대비 6% 성장함. 2013년에는 208천 톤에 이르렀음. 2009-2013년간 러시아 제품수요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내시장 판매이었고 수출비중은 1.8-3.3% 경계에서 변동함
- 염장, 건조, 훈제어류 총판매규모의 약 60%는 염장어류가 차지함. 이 세그먼트에서 인기 높은 제품은 진공 포장한 슬라이스 어류제품(염장정도는 다양함)임. 판매규모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훈제어류이며 2009-2013년간 총판매에서 해당 제품 비중은 평균 약 33%로 집계됨
- 염장, 건조, 훈제어류는 러시아인들에게 전통적인 제품임. 공장생산제품과 경쟁을 이루는 것은 자체 어획한 어류임. 종종 염장, 건조, 훈제어류는 일반적인 주식에 보충하는 요소로 혹은 스낵으로 인식되고 있음. 즉,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조제되어있고 중량 포장된 가벼운 간식거리로 인식됨
- 2009-2013년간 러시아에서 염장, 건조, 훈제어류 공급은 증가하는 수요에 힘입어 성장함. 지난 5년간 지표 성장률은 25.4%를 보임. 국내생산이 러시아시장에서 염장, 건조, 훈제어류 공급에 상당부분을 차지함. 2009-2013년간 수입산 제품의 비중은 총공급규모의 4.9% 이하에 불과함

4. 동향 분석 [청어]

□ **생산동향**

- 2013년 러시아국내 청어시장규모는 전년대비 8%(35.2천 톤) 감소하여 403천 톤으로 집계됨
- 청어 어획량은 전년대비 1% 감소하여 474.1천 톤으로 집계되며, 그중에서 태평양청어는 10.8% 증가한 384.3천 톤, 대서양 및 발틱해 청어는 31.9% 감소한 89.9천 톤 어획됨
- 2013년 러시아에서 냉동청어 생산은 0.8% 감소하여 418천 톤까지 하락함

□ **소비동향**

- 자국어획량이 감소한 배경 속에서 청어 및 청어제품 수출이 증가했고 결국 이는 국내청어시장 총규모의 감소를 초래함

- 2013년 국내청어시장은 전년대비 일인당 0.25kg 혹은 35.2천 톤을 공급받지 못한 셈임. 청어는 러시아에서 소비되는 어류 중에서 소비 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주요 식품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는 자국어류시장에 있어서 불길한 징조임

□ 수출동향

- 청어 및 청어제품(원료) 수출은 19.5% 증가한 256.7천까지 성장함. 청어 총어획량 중에서 54.1%는 주로 동남아시아로 수출됨
- 2013년 동안 청어 평균수출가는 2012년 대비 1.9% 인상된 0.77달러/kg임
- GTA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러시아산 냉동청어(HS코드 030351) 수입은 금액기준 전년대비 124.13% 증가한 12,210천 달러, 물량기준 182.62% 증가한 17,397천kg임

□ 수입동향

< 러시아 냉동청어 수입동향 >

(단위: US 달러, kg, %)

수입국	2011		2012		2013		'13/'12 증감률(금액)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체	159,146,399	164,455,145	130,035,385	95,167,932	149,274,004	119,714,791	14.79
노르웨이	101,217,391	77,731,363	86,651,154	60,034,686	93,734,127	73,057,402	8.17
페로제도	5,448,478	3,888,995	21,573,661	15,073,104	41,189,708	32,198,965	90.93
아이슬란드	15,851,249	11,482,457	15,279,783	11,224,466	9,541,044	7,518,239	- 37.56
핀란드	3,295,774	5,670,138	2,878,767	4,743,818	2,184,854	3,423,215	- 24.10
에스토니아	1,148,753	1,862,436	902,976	1,488,098	1,546,249	2,488,193	71.24
독일	2,412,144	1,972,982	1,046,148	831,269	618,521	435,578	- 40.88
라트비아	1,069,157	1,732,394	641,349	913,839	419,519	542,750	- 34.59
아일랜드	0	0	0	0	24,077	24,137	0.00
폴란드	15,328	18,500	0	0	15,696	26,160	0.00
캐나다	0	0	111,825	74,550	210	153	- 99.81

자료원: GTA (*냉동청어 HS코드 030351)

- 러시아 자체 대서양청어 어획량이 감소한 가운데 냉동 청어 및 청어제품(원료)의 수입은 6.5% 증가한 185.8천 톤으로 집계됨. 게다가 2013년 동안 청어 및 청어제품 수입은 2013년 4분기를 제외하고 전년대비 감소했음
- 2013년 4분기에는 청어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함. 이는 2013년 9월 1일부터 청어 수입관세율이 10%에서 6.5%로 인하됨으로써 청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끼침
- GTA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러시아의 한국산 냉동청어(HS코드 030351) 수입은 금액기준 전년대비 10.4% 증가한 889천 달러, 물량기준 23.65% 증가한 1,075천kg임

□ 유통현황

- 청어시장이 축소되는 배경 속에서 2013년 청어 소비자가격은 평균 15-20% 인상됨

- 대서양청어 조업쿼터가 축소되면서 극동지역 도매시장에서는 특정 사이즈의 대서양청어 부족현상이 발생함. 대서양청어 도매가는 올초부터 인상되어 현재 52-67루블/kg에 거래됨. 올류토르청어가 대서양청어를 대체하고 있음

□ 시사점

- 2013년 국내어류시장에서 대규모의 청어 부족현상이 있었음. 2014년 청어시장에서도 이러한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올해 청어 총허용어획량과 대서양청어 조업 국제쿼터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 게다가 국내청어시장규모 축소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WTO 협약 범주 내에서 향후 어류 반출 수출관세를 인하할 수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어류 및 해산물 수출 성장을 촉진하게 될 부가가치세 반환임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